**고마미야 신사: 미호코 동굴**

고대 일본에서는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을 신의 거처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건물에 신을 모신다는 사고방식이 도입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고마미야 신사에서는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의 뒤편에 있는 절벽이 본래의 숭배 장소였다고 생각됩니다. 선사 시대의 해안가에 자리했던 이 절벽은 현재 부분적으로 흙에 덮여 있지만, 바다의 침식으로 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수 미터 아래에 있는 바위가 파도와 바람에 깎여 형성된 동굴은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동굴은 신화 속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이 국가를 통일하고자 길을 나서기 전에 애용했던 미늘창(긴 손잡이 끝에 양날 검을 부착한 무기, 일본어로 '호코'라고 함)을 바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설 속 미늘창을 본뜬 금속 복제품이 동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